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미래세대 계승, 정부가 나서야

남겨진 과제는

광주민주포럼서 전문가들 제안
21일 집단발포 영상 존재 가능성
적극 발굴해 진상 제대로 밝혀야
정부 체계적 지원·후속조치 필요

5·18 광주 유혈 진압 장본인으로 지목된 전두환씨 사망 이후, 남겨진 과제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5월 정신 세계화 ▲미래세대 계승을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또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순간 등이 담긴 영상물 존재 가능성이 열려있으며, 이를 적극 발굴해 진상 규명에 활용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도 제기됐다.

이런 내용의 전문가 제언은 19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5·18기념재단 주관 '2022 광주민주포럼'을 앞두고 언론에 공개됐다.

이영재 한양대 학술연구교수는 '이행기 정의와 5·18의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배상, 정신 계승 등 '광주 문제해결 5대 원칙' 중 가장 선행됐어야 할 '진상규명'이 가장 뒤늦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현재 진상규명과 관련해 5·18 진압 당시 실질적인 지휘 체계, 발포 명령체계, 광주 현지에서 민간인 살상·상해·성폭력 등 실상, 암매장·행방불명자 조사 등이 진행중이다. 진상규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야 이를 바탕으로 나머지 네 개 원칙의 미진한 점들이 보완될 수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5·18 정의 구현을 위해 향후 개정헌법 전문에 5·18을 포함시켜 민주헌정사적 차원에서 가치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5·18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데 발맞춰 체계적인 정부 차원의 지원과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5·18을 경험해보지 못한 후속세대와 접촉점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서 시장이 청소년을 위한 민주화운동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평생교육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정한 데 따라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포럼에서는 5·18 당시 보도영상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자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노영기 조선대 기초교육대학 교수는 '5·18 보도영상자료의 생성과 활용' 발표에서 보도영상 자료는 하나의 영상 사초(史草)이며 문헌·구술에서 담지 못한 현장성과 역동성을 갖고 있어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새로운 콘텐츠를 재생산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아직 5·18 관련 보도영상 자료는 완전히 발굴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5월 20일 오후부터 광주역 주변 상황을 촬영한 영상 자료, 21일 오후 1시 계엄군이 집단발포·조준사격을 한 전후 영상 자료 등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19일부터 광주 소식을 듣고 국내외 언론이 특파원을 긴급 파견해왔던 만큼, 발굴되지 않은 영상 자료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노 교수는 "5·18 관련 영상 자료를 발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국내외 소장처, 소장자를 수소문해 체계적으로 영상 자료를 수집·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정동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회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직후 행불자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보수정당 과오 반성…호남 미래 함께 걷겠다"

기념사에서 "그 마음 변치 않을 것" 다시 강조

윤 대통령 후보 때 보낸 '손편지'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에서 자신이 대선 후보 시절 호남사람들에게 보냈던 '손편지'를 언급하면서 편지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 후반부에서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저는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광주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멋지게 열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초 여러분께 '손편지'를 통해 전했던 그 마음 변치 않을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대선 후보 시절 호남인 230만 명에게 '손편지'를 보냈다. 편지의 골자는 '5월 광주에 대한 보수정당의 과오 반성'과 '호남지역 산업 발전'이었다.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격으로 보낸 편지에서 윤 대통령은 우선 "정치인이 되어 도전하는 이번 선거에서도 호남에서 저에게 주시는 한 표 한 표가 호남을 발전시킬 책임과 권한을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호남의 고민은 독재에 대한 저항 과정에서 생긴 상처를 넘어 산업과 일자리,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망라하고 있다"며 "저 윤석열은 5월 광주에 대한 보수 정당의 과오를 반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호남의 미래를 함께 걷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호남의 미래 세대가 지역을 떠나 일자리를 찾지 않아도 되도록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진흥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 산업 육성과 관련해선 "광주는 인공지능(AI) 산업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전폭 지원하고, 산업육성에 필요한 자원과 데이터 인프라를 한 곳에 집약시켜 세계적인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주력 산업인 자동차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남지역과 관련해선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산업 특화단지와 우주기업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미래의 핵심 산업 동력인 우주산업을 이끌어가는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도해 지역 연륙교 확충을 통한 이동 편의 개선, 관광산업 육성, KTX와 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윤 대통령 "행불자 찾기 지속적으로 해야"

행불자 묘소 참배

행방불명 묘 총 69기 달해
문미숙·박태식씨 묘 앞 묵념
조아라 여사 묘소에 헌화도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끝난 뒤 윤석열 대통령이 행방불명자 묘역에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취임 후 첫 정부기념식으로 참석한 윤 대통령은 기념식이 끝나고 김범태 국립5·18민주묘지 소장의 안내를 받으며 조아라 여사 묘와 행방불명자 열사들의 묘소를 참배했다.

윤 대통령은 행불자 묘역을 표시하는 비석옆에 따로 중형 크기의 화환을 두고, 조아라 여사 묘에는 직접 꽃다발을 놓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들른 행방불명자 묘역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됐지만 시신을 찾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별도의 구역을 지정해 묘비 등을 설치한 곳이다.

이곳에는 현재 69기의 묘비에 행방불명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날 김 소장은 윤 대통령과 함께 행불자 묘역을 찾아 현황을 설명했다.

총 69기의 행방불명 묘 중에 최근 2기(신동남·김광복 씨)의 신원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확인됐다는 것을 알린 것이다.

김 소장의 설명에 윤 대통령은 '행방불명자를 찾는 지속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윤대통령은 행방불명자 묘역 전체를 돌면서 문미숙씨와 박태식씨 2곳의 묘비 앞에서 묵념을 했다.

박씨는 1980년 5월 20일 조카를 찾기 위해 전남대정문 시위현장에 갔다가 진압하던 계엄군을 피해 도망다니던 중 행방불명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0살이던 문양은 옛 전남도청앞에서 집단발포가 있었던 21일 학동 삼거리에서 실종됐다. 최후 목격자인 문양의 어머니는 1981년 5월 29일 충격으로 사망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조아라(1912-2003) 전 광주 YWCA명예회장 묘를 방문했다.

'광주의 어머니', '민주화의 대모'로 불리는 조 여사는 32년간 광주 YWCA 총무와 회장으로 일하며 광주 YWCA의 주춧돌을 놓았으며, 전쟁고아를 위한 성빈여사를 여는 등 대표적인 여성 사회운동가다.

5·18 당시에는 재야측 수습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다 내란죄로 6개월간 옥고를 치렀고 출감후에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부상자와 사망자 처리를 위해 노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